

기독교 통계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 없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의 달이다. 1년 내내 감사해야 하지만 11월은 특히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내는 만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최근 월드비전이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사뭇 흥미롭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감사 표현 대상으로 하나님이 물론 가장 높는데, 교회구성원보다 배우자나 부모에 대해 감사표현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의 직장동료/거래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감사 정도가 낮았다.

또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는 개신교인이 무려 46%나 되고, 4명 중 1명 가량은 하나님께 평소 감사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119호는 기독교인들의 감사생활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소개한다. 이번 호를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 지역/성별/연령 비례할당추출(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에 근거)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무작위추출법을 가정했을 경우)
- 조사 기간 : 2021년 9월 10일 ~ 9월 23일(14일간)
- 조사 의뢰 기관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 조사 수행 기관 : <실사(Fieldwork)> (주)지앤컴리서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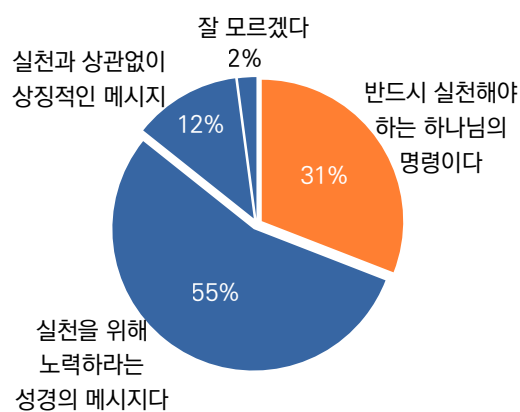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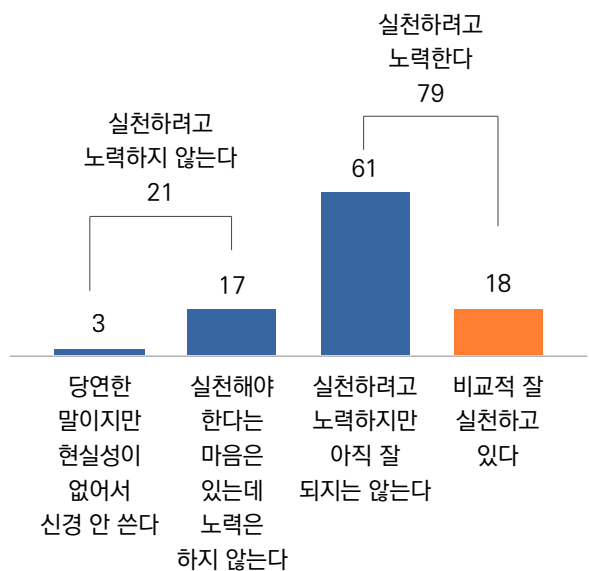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

-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18절 말씀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의 말씀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한 의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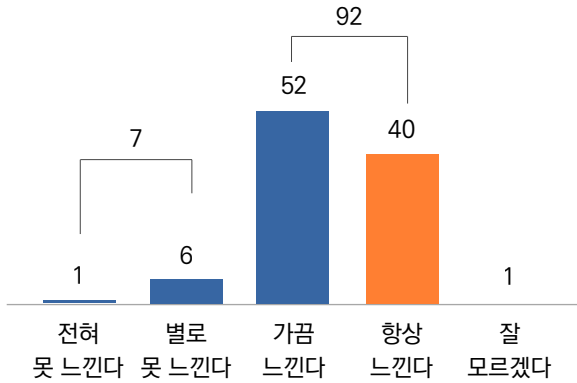
[그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실천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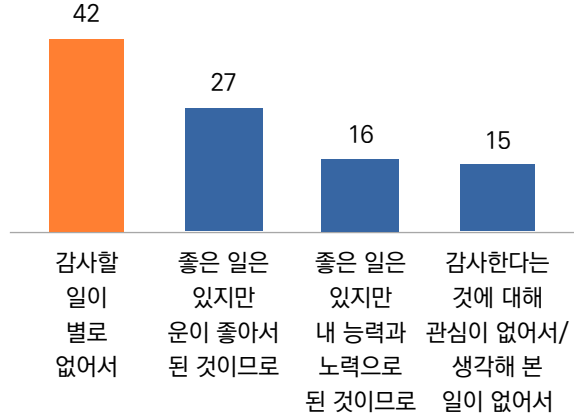
●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인, 기독교적 세계관 부족!

-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평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비율도 40%로 상당수 되고 있다.
-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감사의 근원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의미가 짙는데,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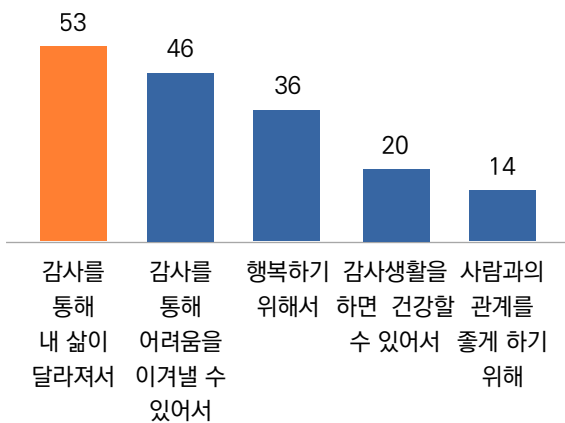
[그림]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이유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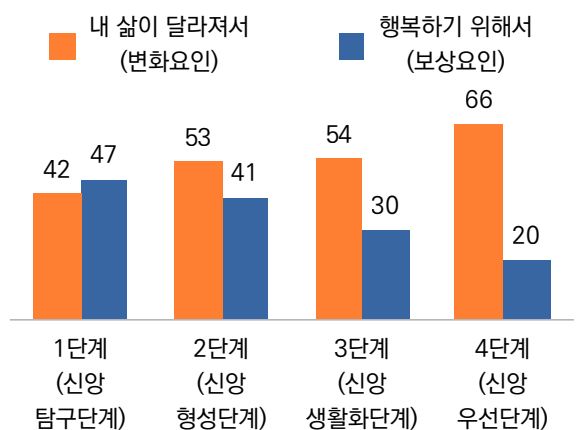
● 감사해야 하는 이유, 신앙수준이 높을수록 보상보다는 변화요인 응답이 높아!

-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했는데,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져서’라는 이유를 절반 이상(53%)이 응답했는데, 이는 감사 생활을 하면 인격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으로 감사이유에 대해 ‘변화요인’과 ‘보상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신앙수준이 낮은 사람은 보상요인을, 높은 사람은 변화요인 지적률이 높다.
-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져서’와 ‘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감사 생활이 신앙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평소 감사해야 하는 이유(1+2순위, 상위 5위)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응답자) (%)



[그림] 감사 이유로 ‘내 삶이 달라져서’ vs ‘행복하기 위해서’ 응답률(신앙수준별) (%)



*Note : 신앙단계구분

1단계 :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 고백이나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다.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교회에도 규칙적으로 출석하려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3단계 : 나는 예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 나는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편이다.

4단계 : 신앙은 나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교회에서의 봉사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

2



감사성향,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는데, 특히 교회내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감사성향을 세분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감사성향 ‘상’ 그룹 30%, ‘중’ 그룹 41%, ‘하’ 그룹 29%로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성향 ‘상’ 그룹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감사 성향별 인구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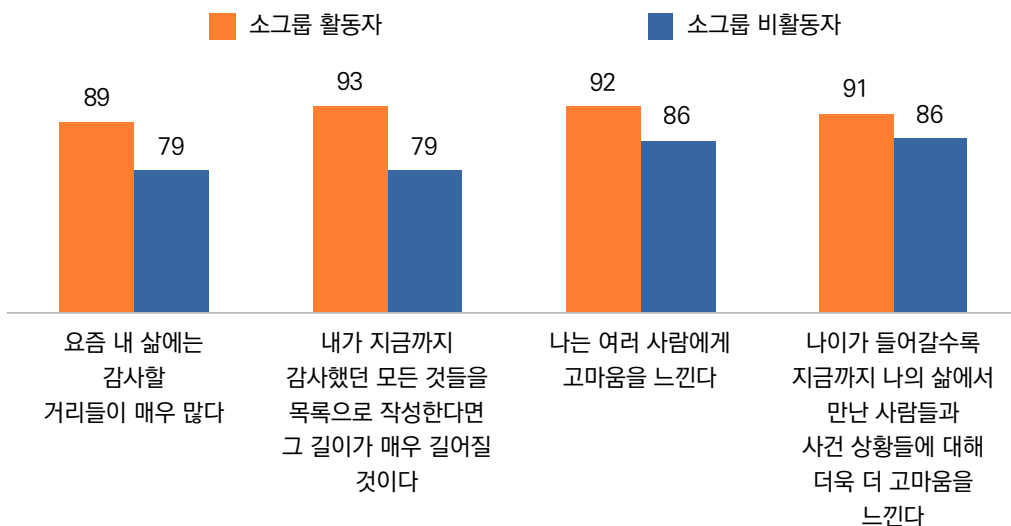
전 체		상	중	하	합 계
		30	41	29	100
연령대	만 19~29세	17	38	45	100
	만 30~39세	21	44	35	100
	만 40~49세	30	44	27	100
	만 50~49세	35	42	22	100
	만 60세 이상	38	38	24	100
신앙 단계	1단계: 신앙탐구단계	14	43	43	100
	2단계: 신앙형성단계	25	42	33	100
	3단계: 신앙생활화단계	33	45	22	100
	4단계: 신앙우선단계	54	34	13	100
소그룹 활동	활동	41	35	24	100
	비활동	24	44	32	100

※ 감사 성향 세분집단 산출근거

- 다음 6개 항목의 응답 점수를 합산(‘잘 모르겠다’는 제외)
: 5번과 6번은 부정 질문이므로 점수를 역코딩
 ① 요즘 내 삶에는 감사할거리들이 매우 많다
 ②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이다
 ③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④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 상황들에 대해 더욱 더 고마움을 느낀다
 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나 상황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
 ⑥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
 → 이 6가지 항목은 권성중이 개발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를 이용함
- 합산 점수를 분포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집단으로 분류함

구분	합산 점수	명칭
1집단	1~16점	하
2집단	17~20점	중
3집단	21~24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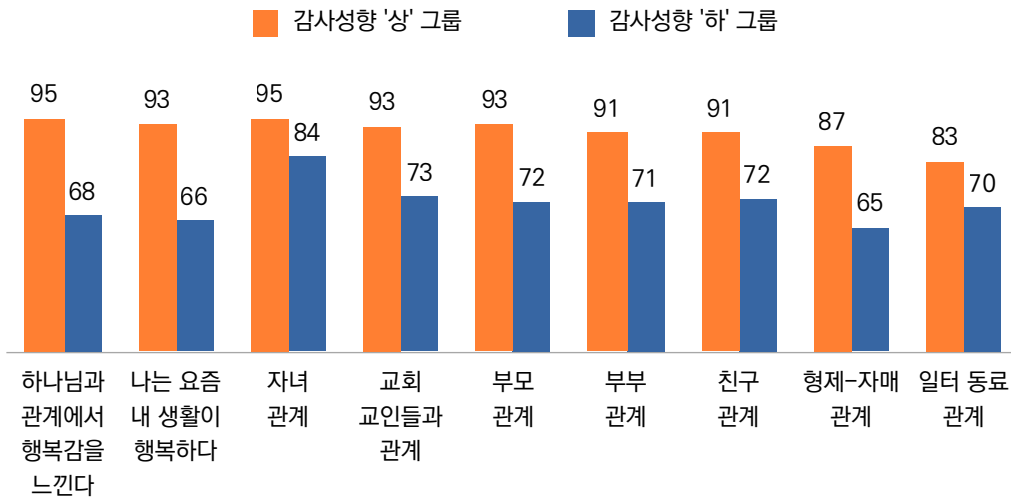
[그림] 소그룹 활동 여부별 감사성향(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



● 감사성향 강한 그룹이 개인의 행복도/사람간의 관계 만족도에서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 자신의 행복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만족도를 보면 감사성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신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확인해 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행복도 및 관계 만족도 (감사성향별,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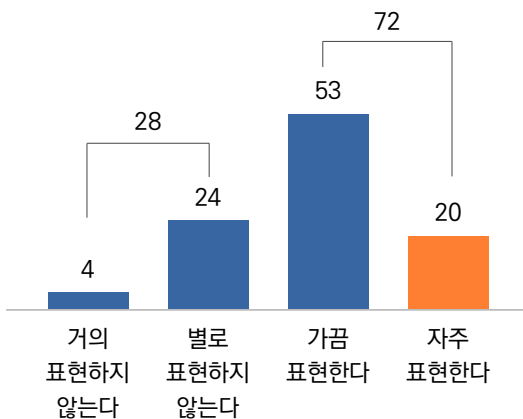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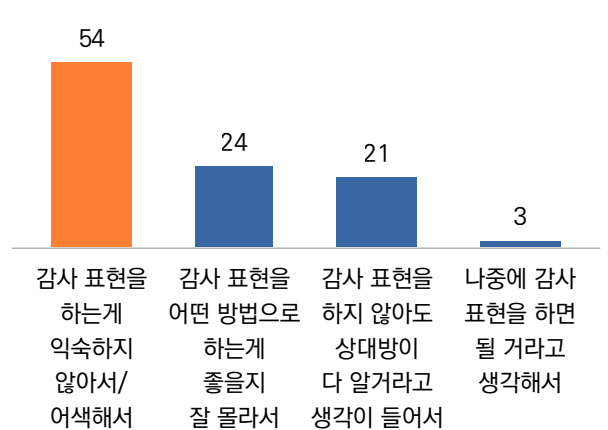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 20%에 불과!

-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자주+가끔)은 72%로, 앞에서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비율이 92%인 것과 비교하면 그보다 약 20%p 적다.
- 또한 '자주 표현한다'는 비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넓게 있으나 감사 표현은 그만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색해서', '상대방이 알거라고 생각들어서' 등의 이심전심이라는 한국적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 감사하는 마음 느낄 때 말과 행동으로 표현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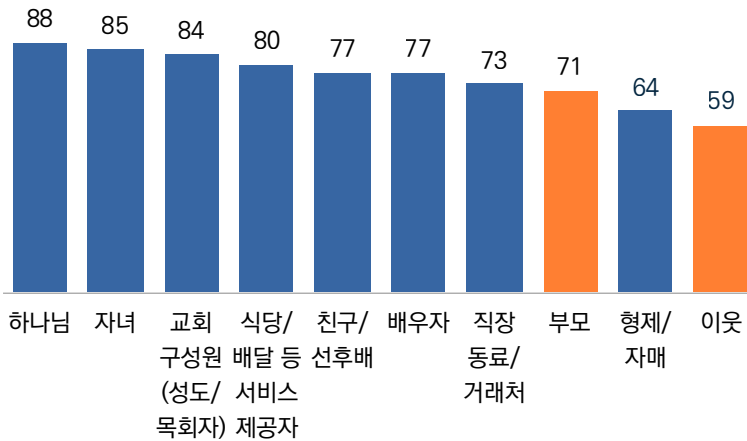
[그림]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응답자) (%)



● 하나님과 교회구성원에 대한 감사보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표현 인식!

- ‘하나님’과 ‘교회 구성원’에 대한 감사표현 빈도가 높는데 반해, ‘배우자’, ‘부모’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보다 적었다. 특히 ‘형제/자매’ (64%)에 대한 감사 표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제 하루 절반의 기독교인이 감사표현을 ‘했다’고 응답했고, 감사할만 한 일 중 감사표현 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감사 표현 대상(각 대상별 응답자, 항상+가끔)



(%) [그림] 감사 표현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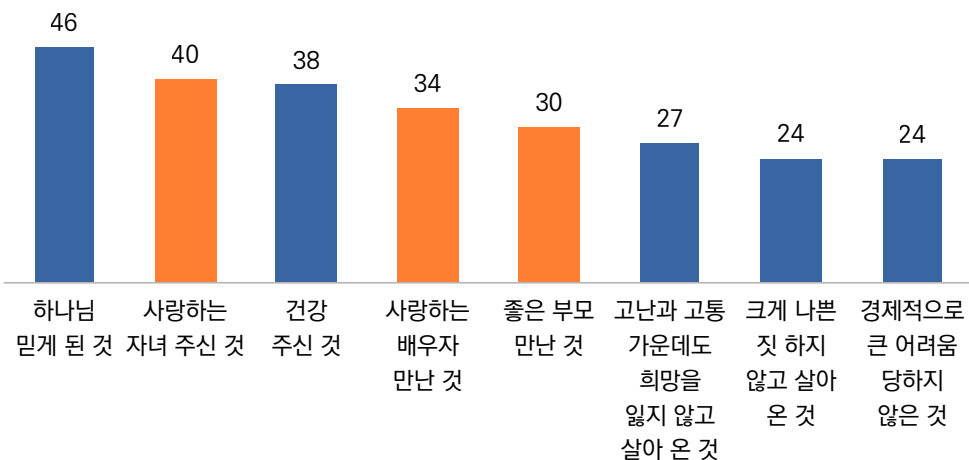
- 어제 하루 감사할만 한 일 횟수 → “평균 4.2회”
- 어제 하루 감사 표현 여부 → “했다 52%”
- 어제 하루 감사 표현 횟수 (어제 감사 표현한 응답자) → “평균 3.7회”

● 인생 최고의 감사 제목, ‘하나님’과 ‘가족’!

가족 중에서는 자녀 감사가 가장 크고, 부모 감사가 가장 낮아

- 유언장을 쓴다면 가장 감사한 일로 ‘하나님 믿게 된 것’, ‘자녀 주신 것’, ‘배우자 만난 것’ 등이 높아, 인생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과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흥미로운 것은 가족 중 ‘자녀’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자녀 중심적’인 우리사회의 가정 문화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그림] 지금 유언장 쓴다면 감사할 제목(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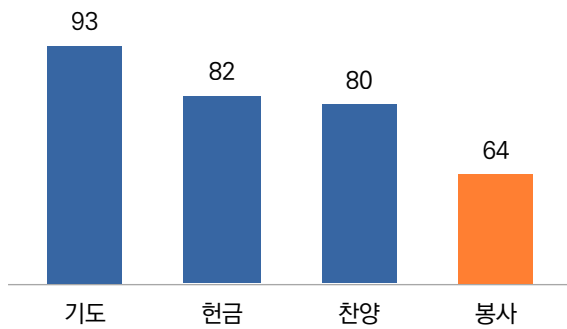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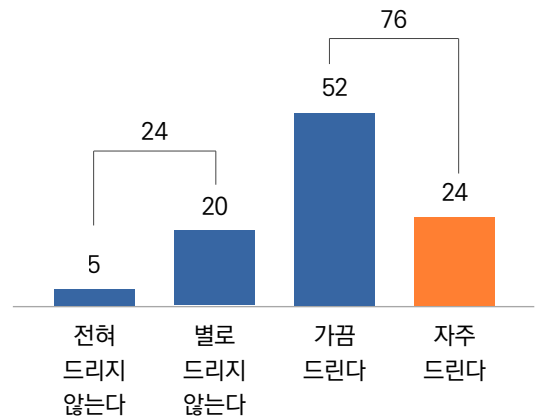
기독교인 4명 중 1명(24%), 하나님께 감사 기도/찬양하지 않아!

- 하나님에 대한 감사표현으로 '기도'가 절대 다수였고, '봉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64%)을 보였는데, 감사의 표현이 봉사까지 연결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나 감사찬양을 '자주 드린다'는 응답이 24%로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고, 반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감사찬양을 드리지 않은(전혀+별로) 경우 역시 4명 중 1명 가량(24%)으로 조사됐다.

[그림] 하나님께 감사 표현 방법(4점척도, 항상+가끔 한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한다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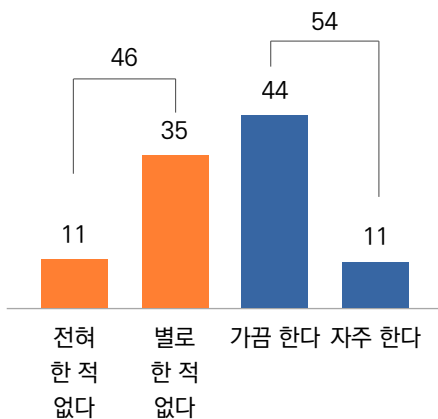
[그림] 하나님께 감사 기도/찬양 드리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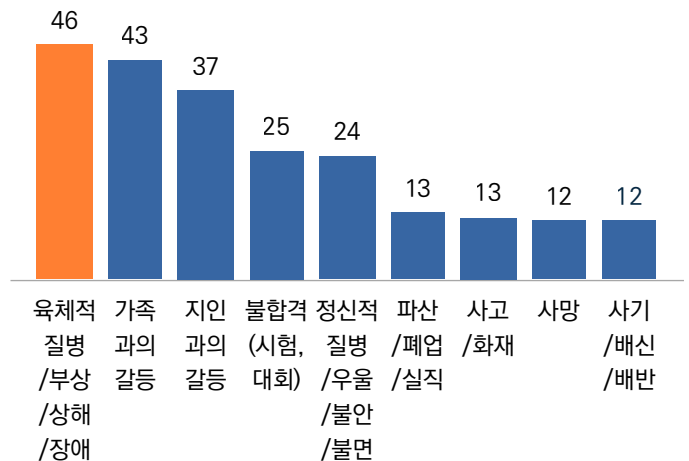
●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 없다'!

- 기독교인 중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한 경험이 절반을 조금 넘었고(54%), 46%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우는 '육체적 질병/장애' 등이 46%로 가장 높는데, '가족과의 갈등'이 두번째로 응답돼,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한 가정이 상당수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연수와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 (%)



[그림]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우(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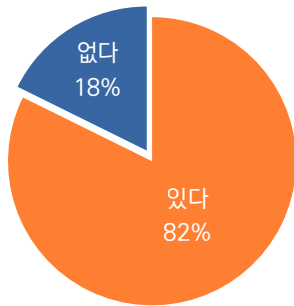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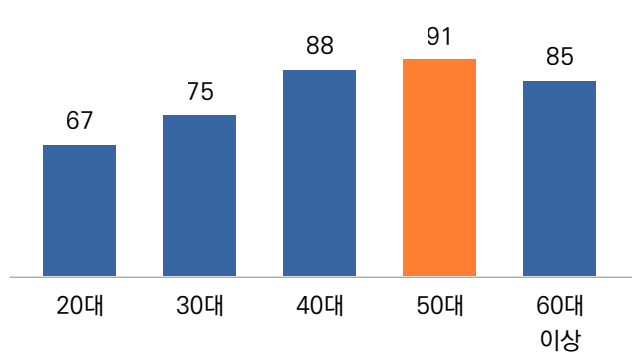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 결단 경험 있어!

- 설교를 듣다가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한 경험은 82%로 대부분이었다. 감사 설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설교를 통한 감사 생활 결단 경험이 높는데, 특히 50대가 91%로 거의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 결단 경험



[그림]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 결단 경험(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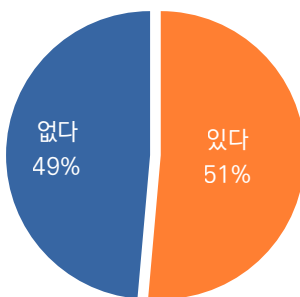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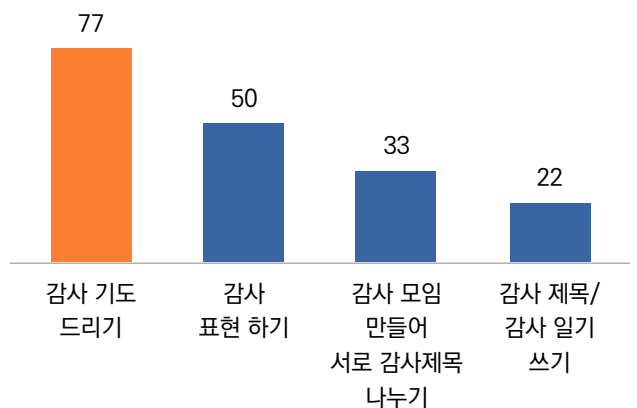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진행하면 대부분의 교인들(82%)이 참여!

- 출석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실시 경험은 절반 정도(51%)로 나타났다.
- 교회에서 실시한 감사 캠페인 내용은 '감사기도'가 가장 많고, '감사일기 쓰기'는 22%인데 대형교회 교인들에게서 특히 그 비율이 높았다.
- 출석교회의 감사 캠페인 시 본인 참여율은 82%로 교회가 캠페인을 실시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실시 여부 (교회 출석자)



[그림] 교회에서 실시한 감사 캠페인 내용(중복응답) (%) (감사 캠페인 실시한 교회 출석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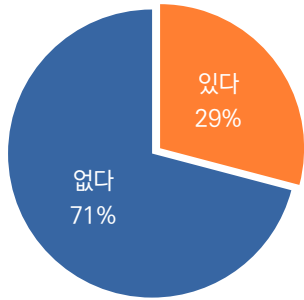
[그림] 교회 안팎의 감사 캠페인 참여 경험

교회의 감사 캠페인 시 본인 참여율 : 82%
교회 밖 감사 캠페인 시 본인 참여율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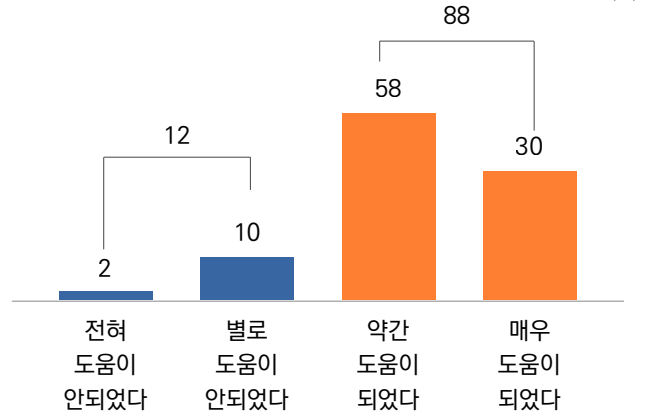
● 감사 생활 관련 교육/훈련 참여 경험 29% → 감사생활 ‘도움됐다’ 88%!

- 감사생활에 대한 강의/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 그러나 참여한 사람의 절대 다수가 감사생활에 ‘도움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감사 교육이 감사생활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감사 생활 관련 강의/교육/훈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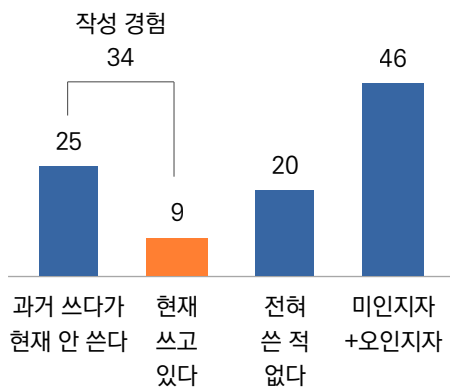
[그림] 감사 생활 관련 강의/교육/훈련이 감사생활에 도움 여부 (강의/교육/훈련 받은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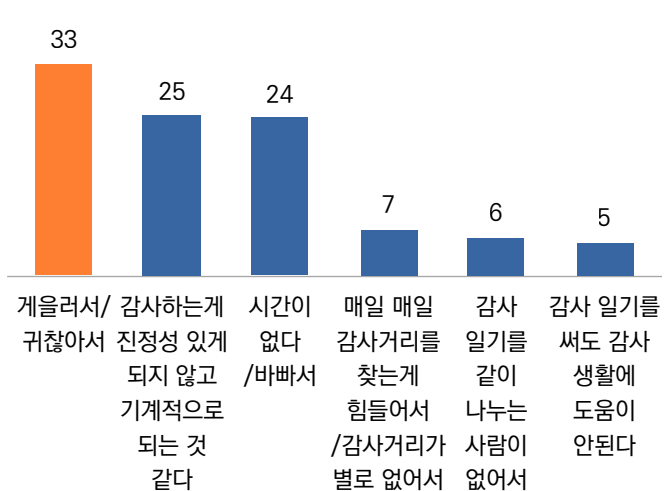
● 감사 일기 작성, 현재 작성 9%, 작성경험 34%!

- 감사 일기에 대해 기독교인 3명 중 1명 정도(34%)가 작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쓰고 있는 비율(9%)보다 중단한 비율(25%)이 훨씬 높는데, 그만큼 지속적인 감사일기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감사 일기를 중단한 이유는 ‘게을러서’, ‘기계적으로 된다’ 등의 응답이 높는데, 모임을 구성해 그 안에서 지속적인 나눔과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감사 일기 작성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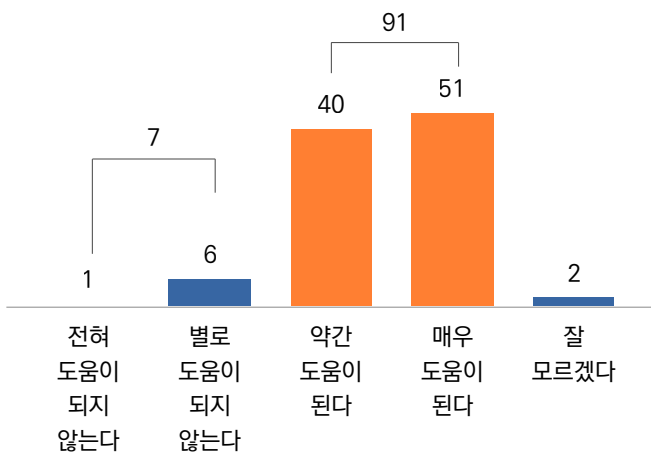
[그림] 감사 일기 작성 후 중단 이유 (감사 일기 썼다가 중단한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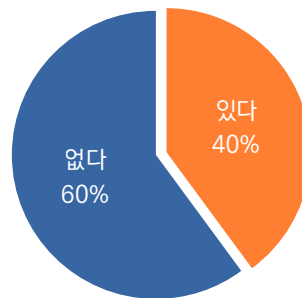
● 감사일기, 감사생활에 ‘도움된다’ 91%

- 감사일기가 감사생활에 도움되는 정도는 91%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일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데,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 일기 나눔모임 참여율은 현재 감사일기 작성자나 중단자 기준으로 40%였다.

[그림] 감사일기가 감사생활에 도움되는 정도 (%)



[그림] 감사일기 나눔 모임 참여 여부 (감사일기 중단자 + 현재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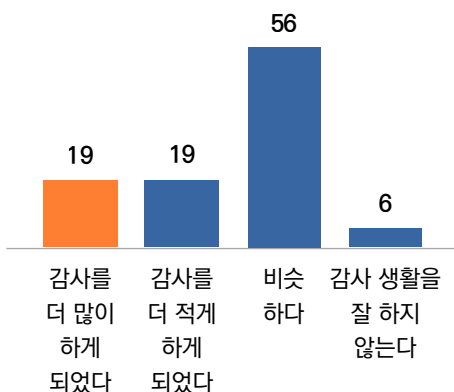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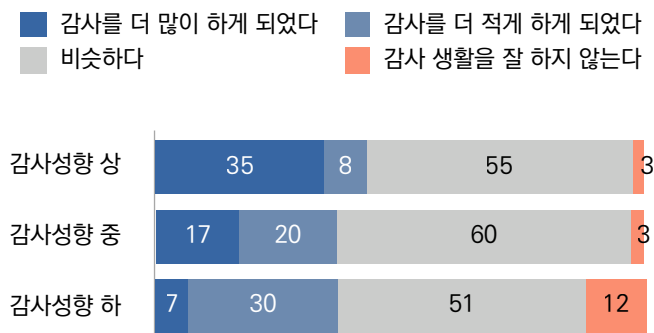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즐지 않아!

-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들의 감사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생활 변화를 질문한 결과, 감사를 ‘더 하게 되었다’와 ‘더 적게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감사생활이 크게 즐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특히 감사성향이 강한 ‘상’ 그룹에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더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아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감사생활 변화(전체) (%)



[그림] 코로나19 이후 감사생활 변화(감사성향별) (%)





시사점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을 이 찬양만큼 잘 드러낸 것이 있을까? 이 가사에는 하나님, 구원, 자연, 고난, 인생, 응답, 가정, 희망 등등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분이 세계와 사람 속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데서 출발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총체적 결과가 감사인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므로 고난이 끝이 아니며 그 고난을 뚫고 지나면 자신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필수적이다.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여 함양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한가지 발견사항은 감사 표현의 방법으로 '봉사'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세계관을 확장시켜야 한다. 즉 나에게 온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과 그것의 '통로'가 된 사람 사이에서만 가두지 않고, 받은 은혜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써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자기로부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감사 표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전해질 때 세상은 살만한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다.

신앙 생활이 그렇지만, 감사 생활 역시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감사 일기, 감사 제목 쓰기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창 시절 일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감사 일기, 감사 제목 쓰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10쪽).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 제목이나 감사 생활을 서로 이야기하는 '감사 나눔 모임' 구축이 효과적이다. 감사 나눔 모임의 유익함은 4가지가 있다. 첫째, 타인의 감사 생활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사 생활을 통해 감사 필요성,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배우는 감사 교육/훈련의 효과가 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퇴색해질 때 이를 재활성화(revitalizing)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감사에 게을러졌을 때 서로 자극을 주어서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다. 감사 모임은 별도로 만들 수도 있으나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일 때(온라인 모임 포함) 서로 지난 생활을 나누면서 감사 제목을 나눌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비활동자층보다 훨씬 감사 성향이 높은 것을 보면, 소그룹 모임에서 감사를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기독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한 경우가 무려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감사 생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중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설교에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또 출석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교인(82%)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9쪽), 이러한 조사 결과는 목회 강단에서 감사 설교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을 진행하면 교인들이 마음으로 쉽게 동의하며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감사 생활이 세상을 보는 긍정적 시각을 높이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 한국교회에서 감사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 한국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